



도회 수능사회

한국지리

EBS 분석서



 지은이

지은이



도회
IMIN 495790

편집인



청서
IMIN 805796

 제작 도움

표지 디자인



김현정
IMIN 819710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위치

위치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두자.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결국 시험장에서 헛갈리게 된다. 대책점과 표준시를 묻는 문제는 내신에서는 많이 다룰만 하지만, 수능에서는 잘 다루는 주제가 아니다. 물론 한 번쯤은 계산 해보아야 한다. 할 줄은 알아야 하니까.



영해·EEZ

우리나라의 영해과 배타적 경제 수역 파트는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의 정확한 차이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우리나라 해상의 어떤 구간에서 사용되는지, 범위가 몇 해리인지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이것은 암기의 영역이다.



독도

독도는 꽤 자주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도의 특성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간혹 섬의 수리적 위치만을 주고서 어느 섬인지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극동인 독도의 위도와 경도는 외워두는 편이 좋다. 그리고 독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가볍게 읽어두자.



간도·이어도

간도와 이어도는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 특성을 알아둘 필요는 있다. 간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것, 조선족이 많이 산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고 이어도는 절대 섬이 아니라는 것, 마라도와 헛갈리면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이다.

O/X 문제

- 1 우리나라는 경도의 영향으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O/X
- 2 무인도도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함된다. O/X
- 3 이어도에는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이 위치해 있다. O/X
- 4 독도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섬이 되었다. O/X
- 5 백령도는 우리나라의 극서이다. O/X
- 6 독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O/X
- 7 이어도는 한국, 중국, 일본 중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다. O/X
- 8 독도는 지형 대부분이 완경사로 되어 있어 항구 건설이 용이하다. O/X

국토 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국토관

국토관에 대한 문제는 잘 출제하지 않는 편이다. 그냥 옛날 사람들은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배산임수 취락 입지를 선호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자.



고지도

조선 전기와 후기의 고지도들을 비교하는 문제는 잘 알아두자. 특히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천하도, 대동여지도, 동국지도 정도 대표적 지도들의 '제작 시기', '제작 목적', '지도 내용' 정도를 공부해두자.



지리지

지리지 문제는 자주 나오는 주제이고 이분법으로 나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관한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사찬 지리지인 택리지의 차이 정도는 알아두자. 백과사전식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이고, 가거지의 조건을 언급하면 택리지이다.

O/X 문제

- 1 풍수지리 사상은 국토의 잠재력을 이용한 적극적인 개발을 강조했다. O/X
- 2 일제 강점기 때의 국토 인식의 사례로는 호랑이 형상의 한반도 지도가 있다. O/X
- 3 지리 정보의 유형에는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가 있다. O/X
- 4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실학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O/X
- 5 설문조사는 지역 조사의 절차 중 야외 조사에 해당한다. O/X
- 6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지 않은 지도이다. O/X
- 7 택리지에서는 지역의 풍속을 '생리', 경치와 풍경을 '지리'라고 하여 가거지의 조건으로 삼았다. O/X

> 정답과 해설 19p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과학적 내용

많은 수험생이 이 단원이 한국 지리인지 한국 지구과학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구과학처럼 형성 과정과 성분 등을 자세하게 묻지 않고 원인과 결과 수준에서 출제된다.(석회암에 규소 성분이 있고... 이런 것은 묻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암석들이 만들어졌는가.'이다. 그리고 암석의 생성 순서는 다른 자연지리 파트와 복합 출제되기도 하니 주의하자.



지각 운동사

지각 운동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면 된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는 빈칸을 낸 지각 운동 표를 제시하여 언제 무슨 지질 계통이 형성되었고, 어떤 지각 운동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파트는 암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성인을 이해해 놓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근처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유추가 가능하니 시·원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볍게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상호 비교되는 개념

빙기와 후빙기 간, 1차 산맥과 2차 산맥 간, 그리고 흙산과 돌산 간의 비교는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이다. 대부분의 성질이 이분법으로 나뉘기 때문에 다 외우기 부담스럽다면 정확하게 하나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풀기 쉬운 것이다.

O/X 문제

- 1 경주의 대표적 고대 건축물인 불국사 삼층석탑과 첨성대는 주로 고생대 퇴적암으로 만들어졌다. O/X
- 2 옥천 습곡대는 퇴적암과 화강암이 주된 기반암이며, 그중 퇴적암은 주로 석회암과 무연탄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고생대 퇴적암이다. O/X
- 3 제주도는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O/X
- 4 최종 빙기 때는 후빙기보다 낙동강의 발원지와 하구 간의 거리가 멀었다. O/X
- 5 최종 빙기 때는 후빙기보다 동해의 면적이 넓었다. O/X
- 6 1차 산맥은 지각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O/X
- 7 울릉도 성인봉의 정상부는 최종 빙기 때 바다에 잠겨 있었다. O/X
- 8 지리산과 금강산의 주 기반암은 퇴적암으로 분류되는 암석이다. O/X
- 9 공룡 발자국과 관련된 지층은 중생대 퇴적층이다. O/X

> 정답과 해설 20p

> 8p의 10번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



유역과 하계망

하천의 유역과 하계망은 지도를 주고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많다. 지도를 보고 어디가 그 하천의 분수계이고 어디까지가 그 하천의 유역인지 알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요구하는 파트이기도 하다. 보통 지도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한강, 낙동강 등 대하천의 유역 면적과 성질을 직접 묻는 문제도 나오니 암기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감입 곡류 하천

하천의 지형 파트는 중·상류의 감입 곡류 하천과 중·하류의 자유 곡류 하천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핵심이다. 정말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외우기 참 귀찮은 파트이지만, 둘 간의 성질이 정반대이므로 하나만 정확히 외워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천 생성 지형

하천 생성 지형인 하안 단구, 선상지, 침식 분지, 범람원, 삼각주 등은 성인과 그 특성을 정확히 알아두자. 그리고 지형도를 보고 즉각 어떤 지형인지 알아맞힐 수 있도록 각 지형의 지형도를 미리 파악해두고, 지형도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해안 지형

해안 지형은 하천 지형과 함께 지형도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형이다. 각 해안 지형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 성인을 무조건 알아야 한다. 사빈의 성인을 조류라고 하거나 갯벌의 성인을 파랑과 연안류라고 하는 낯시 선지는 무조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이다.



해안 지형의 기능

해안 침식 지형, 퇴적 지형, 갯벌 해안의 성인도 중요하지만 각 지형이 지형도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미리 많이 익혀두자. 그리고 그 기능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해안 사구와 갯벌의 기능은 자주 출제되는 개념 중 하나이니 잘 알아두어야 한다.

O/X 문제

- | | | |
|---|--------------------------------------|-----|
| 1 | 하굿둑이 설치된 감조 하천에 해당하는 하천으로는 섬진강이 있다. | O/X |
| 2 | 해안 사구는 지반의 융기 및 해수면 변동으로 형성된다. | O/X |
| 3 | 방풍림은 주로 사빈에 조성된다. | O/X |
| 4 | 해안 사구 아래에 형성되는 지하수는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낮다. | O/X |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생태 환경 지형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인 카르스트 지형이 나온다. 카르스트 지형은 제주도 현무암 지형과 굉장히 많은 비교가 되는데, 공통점이 많지만 분명한 성인에서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지형 모두 동굴을 만드는데, 두 지형의 성질을 비교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O/X 문제

- 1 백두산 정상부는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O/X
- 2 제주도 산방산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종 모양의 화산이다. O/X
- 3 우도는 최종 빙기에도 제주도와 분리된 섬이었다. O/X
- 4 나리분지와 백록담은 모두 중생대에 형성되었다. O/X
- 5 현무암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 형성되었다. O/X
- 6 돌리네의 내부에는 지표수가 지하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 O/X
- 7 산방산은 주위의 완만한 지형을 형성한 용암보다 점성이 작은 용암이 굳어 형성되었다. O/X
- 8 제주 만장굴은 용암의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다. O/X
- 9 강원도 정선의 구렁이가 여덟 개 있다고 하여 '발구덕 마을'이라 불리는 마을은 침식 분지내에 있다. O/X
- 10 백록담의 와지는 기반암의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O/X

> 정답과 해설 22p

〈산지 지형〉 추가 문제

- 10 후빙기는 빙기보다 물리적 풍화로 인한 풍화 산물이 하천 상류에 공급되는 양이 많다. ○/X
- 11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백시 매봉산 일대는 기온 역전 현상에 따른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X
- 12 한반도의 비대칭적 경동 지형은 지각의 확장과 그에 따른 횡압력으로 인해 나타났다. ○/X
- 13 함경산맥은 북서쪽(서쪽)으로는 급경사면, 남동쪽(동쪽)으로는 완경사면을 이룬다. ○/X

> 정답과 해설 20p

〈하천, 해안 지형〉 추가 문제

- 5 석호는 주로 동해안에서 볼 수 있으며, 경포호, 영랑호가 대표적이다. ○/X
- 6 해안 사구가 서해안 지역에 잘 발달한 것은 겨울철 계절풍의 영향이다. ○/X
- 7 두만강은 황해로, 압록강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다. ○/X
- 8 삼각주에서는 지하수면이 낮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X
- 9 침식 분지는 안개의 발생 빈도와 농작물의 냉해 빈도가 높은 편이다. ○/X
- 10 서해안은 남해안보다 인간에 의한 해안선의 변화가 활발하였다. ○/X
- 11 석호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낮았던 빙기에 형성되었다. ○/X
- 12 역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주변 농경지의 염해가 감소할 것이다. ○/X

> 정답과 해설 21p

기후 특성과 변화, 자연재해

기후 개념·통계 암기

많은 학생들이 에너지·공업과 함께 이 단원의 문제를 최고난도의 킬러 문제로 꼽는다. 대부분 일반성으로 풀리긴 하지만, 그 일반성으로 풀려면 개념을 철저히 공부해야한다. 일반성으로 풀지 않으려고 하면 기후 통계를 외워야 하는데, 기본적인 통계를 외우는 것은 좋지만 모든 통계를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참 딜레마가 심한 단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일반성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전에 북한의 기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우리가 배우는 개념들의 조합으로 풀리지 않아서 논란이 많은 문제였다.

그래서 집중해야하는 것이 기후의 원인과 결과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3개의 기단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물론이거니와 각 지역이 왜 8월 기온이 높고, 왜 1월 기온이 낮고, 왜 연교차는 높고... 등등 '왜?'를 물어야하는 단원이다. 따라서 기후는 강수 분포와 연교차 등의 기본적인 통계치를 외워두는 것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전부를 수능 날까지 가지고 가기는 어렵기에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도록 하자.

바람

계절풍 문제, 즉 풍향도와 바람장미를 보여주고 풀게 하는 문제는 기압 배치를 떠올리면서 각 기단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그리고 편 현상은 높새바람의 원인으로 나오는 일명 '지나가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 편 현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동과 영서지방의 기후 현상 차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는 '지나가는 개념'이 다른 단원들과는 다르다.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 기후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은 개념 하나도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기후 단원은 보다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하자.

주민 생활

기후에 따른 가옥의 특징과 주민 생활은 전부 암기를 해도 좋고, 특징적인 단어만 뽑아서 공부해도 좋다.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착실히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수능은 나올 것이 따로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이해가 필요한 파트이다. 이때 '언제', '왜', '어디서', '무슨 자연재해', 이 네 가지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 '늦봄에서 초여름에 높새바람의 영향으로 영서지방이 건조해져 가뭄이 온다던지', '한여름에서 초가을에 열대 이동성 저기압인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나타난다던지'와 같은 포인트들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식생·토양 분포

토양과 식생분포는 사실 문제로 내기 정말 좋은 내용이지만 잘 내지 않던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슬금슬금 성태토양, 간태토양 간의 차이와 수직적 식생 분포와 수평적 식생 분포의 특징을 묻고 있으니 꾸준히 눈으로 봐두도록 하자.



기후 변화·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는 너무 당연하게도 ‘지구 온난화’ 중이라는 사실 아래 교과서가 쓰여 있기에 수능 한국지리에서도 지구는 온난화 중임을 출제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이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여름이 길어지고,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그런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물론 대부분 출제되면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북한계선이나 재배적지 등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어휘를 중점적으로 외워 두는 것이 좋다.



기후 변화의 대책

기후 변화의 대책으로 다양한 의정서와 협약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지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소재이니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자. 평가원이 갑자기 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 수능에서 한 문제를 차지하기에는 아까운 소재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지에서는 가끔 내놓고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지 응시자는 외워둬야 한다.

O/X 문제

- 1 '강릉은 포항보다 겨울 평균 기온이 낮다'는 '일사량의 차이로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의 사례이다. O/X
- 2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시기는 습도가 높은 시기이다. O/X
- 3 기온 역전 현상은 기온의 일교차가 작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의 낮에 잘 발생한다. O/X
- 4 대관령이 강릉보다 서리의 마지막 날이 늦는 이유는 위도가 낮기 때문이다. O/X
- 5 강릉은 청진보다 여름 강수량 대비 겨울 강수량의 비율이 높다. O/X
- 6 초여름에 오호츠크해 기단이 확장하여 북동풍이 불었을 때, 일 최고기온은 '원주>대관령>강릉' 순으로 높았을 것이다. O/X
- 7 울릉도가 태백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은 것은 해발고도의 영향이다. O/X
- 8 같은 달의 일교차가 큰 날은 일교차가 작은 날보다 구름의 양이 적었을 것이다. O/X
- 9 열대일 일수의 시·군 분포는 한파 일수의 분포보다 도시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O/X
- 10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리는 시기는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시기보다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O/X

> 정답과 해설 23p

도시와 인구 / 교통, 서비스업, 소비

도시

단독으로 출제된다면 인문지리 치고는 굉장히 쉬운 편이다. 그러나 지역지리와 복합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킬러 문제의 소재로 쓰일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재작년 수능에서 극악의 정답률을 보였던 20번 문제는 지역지리·인구 복합 문제였다. 도시 파트의 공부는 도시 체계의 특성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의 특성 차이를 공부해두자.

집촌·산촌

전통촌락 파트는 집촌과 산촌 간의 차이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참고로 산촌의 산을 ‘뫼 산(山)’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산촌의 산은 ‘모을 집(輯)’의 반대말로 ‘흩어질 산(散)’이다. 가옥이 모이거나 흩어질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 파트는 도시의 특성을 잘 알아둬야 한다. 특히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 대도시 권역 내의 ‘주간인구지수’, ‘지가’, ‘상주인구’ 등의 지표들이 도심과 외곽 지역 간, 중심도시와 교외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실하게 공부하고 가야한다. 그리고 이 파트는 주로 제시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푸는 파트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의 해석 능력을 키워 소요시간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수능까지 해야 한다.

정주 체계·도시 체계

체계 파트는 굉장히 쉬운 편이다. 개념의 양이 적고, 문제들은 대부분 인구 규모에 따른 ‘일반성’으로 풀린다. 선지만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정도다. 특히 도시의 중심지 계층에 따른 도시 수의 반비례 관계와 같은 ‘기본 지표’들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종의 ‘양치기’ 훈련을 추천한다.

인구

인구 파트 또한 ‘일반화’가 가장 필요한 파트이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농촌의 고령화 지수가 높을까? 도시 지역이 높을까? 당연히 농촌 지역이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인구에서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곧 노인부양비와 총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사회적 요소 간의 유기성을 관찰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교통

소비 공간과 교통 파트는 ‘일반성’에 주목해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암기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푸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다. 소매업 파트는 주요 5개 소매업태 중 두세 개 정도를 뽑아서 비교하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일반성’으로도 당연히 풀리겠지만 암기를 통해 특정 값을 미리 외워두면 더 손쉽게 풀 수 있다. 교통 또한 기종점 비용과 단위 거리당 주행비용이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통한 ‘일반성’을 이용하여 푸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암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O/X 문제

- 1 농촌, 어촌, 산지촌은 촌락을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O/X
- 2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추진한 도시는 기업도시이다. O/X
- 3 도시의 지역 분화는 보통 도시가 성장할수록 뚜렷해진다. O/X
- 4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O/X
- 5 도심에는 상업·업무 기능이 집중되는 집심 현상이 발생한다. O/X
- 6 파주 운정신도시는 부천 중동신도시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다. O/X
- 7 고양에는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가 있다. O/X
- 8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면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국토의 재편성이 고려될 것이다. O/X
- 9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은 접근성이 높은 촌락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은 편이다. O/X
- 10 종로구 종로3가역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보다 한낮의 승차 인원이 많을 것이다. O/X
- 11 서울의 '법정동 수>행정동 수'인 구는 '행정동 수>법정동 수'인 구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낮을 것이다. O/X
- 12 파주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다. O/X
- 13 어떤 산업의 취업자 수 상위 5개 시·도가 취업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경기, 서울, 경남, 인천, 부산이었을 때, 이 산업은 제조업, 농림어업, 정보통신업 가운데 정보통신업일 것이다. O/X
- 14 주요 소매업태의 사업체 수는 '편의점>무점포>대형마트>백화점' 순, 종사자 수는 '무점포>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 순, 매출액은 '무점포>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 순으로 많다. O/X
- 15 인제, 거제, 광주, 용인의 성비가 'A>B>C>광주' 순, 인구 증가율이 'C>A>광주>B' 순으로 높을 때, A, B, C는 순서대로 거제, 인제, 용인일 것이다. O/X
- 16 총인구에서 권역별 인구 비중은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순으로 높다. O/X
- 17 서울, 전남, 충남, 울산의 시·도별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울산>충남>전남>서울' 순으로 높다. O/X
- 18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외국인 취업자 수는 '광업·제조업>농림어업>도소매·음식·숙박업' 순으로 많을 것이다. O/X
- 19 서울, 경기, 울산, 전남의 노령화 지수는 '전남>경기>서울>울산' 순으로 높다. O/X
- 20 강원, 충남, 제주의 인구 밀도는 '제주>충남>강원' 순으로 높다. O/X

> 정답과 해설 25p

자원·에너지 / 농업, 공업

❁ 암기

암기가 필수 불가결하여 한국지리와 경제지리가 분리되어 있었을 때부터 경제지리 기피 현상을 만들었을 정도로 역시 암기 위주인 자연지리 단원과 함께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파트이다. 공업은 유일하게 ‘일반성’으로 잘 풀리지 않는 파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포항에 제철 산업이 발달하고 울산에 자동차와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것은 정부와 기업이 정책적으로 특정 지역 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인 것이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파트는 각 지역에 어떤 사업이 발달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암기가 필요하다.

❁ 에너지

에너지 파트는 사실 한지에서도보다 세지에서 어려운 파트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차 에너지라고 해봤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에 수력과 신재생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 에너지들을 모두 권역별, 시·도별로 줄 세우는 연습을 엄청나게 한다면 절대 틀릴 일이 없겠지만, 비현실적인 공부 방법이기에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느냐? ‘일반성’을 사용하되, 그에 반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은 암기를 통해 배우면 된다. 예를 들어, 충남은 특이하게 석탄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는 충남에 대규모 석탄 화력발전소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편인 석탄 화력발전은 하루 24시간 연속 발전소를 가동하는 기저발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양의 석탄을 소비한다. 이러한 이유로 충남의 석탄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이처럼 공업 파트와는 달리 에너지 파트는 어느 정도 ‘일반성’이 적용 가능한 파트이다.

❁ 농업

농업 파트 또한 ‘일반성’ 공부를 병행한 암기 형식으로 공부해야 한다. 어디서 무엇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4대 작물인 쌀, 맥류, 채소, 과수의 분포를 공부해야 한다. ‘일반성’은 예를 들어, ‘호남지역은 너른 평야가 많고 농업용수 공급이 용이해 벼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논의 비율이 높고 쌀 생산량이 많다.’, ‘강원도는 지역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기후가 한랭하여 논농사가 불리해 밭의 비율이 높고 채소의 비중이 높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통계를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하자.

❁ 시·도별 공업 통계

공업 파트는 권역별도 중요하지만 시·도별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각 도(道)와 도시에 어떤 공업이 발달하였는지 모조리 알아야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지리에서 다루는 공업도시들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공업 지역과 그 특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 공업 파트를 배우는데, 공업이 강하지 않은 도시의 통계를 내기에는 ‘교육적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꽤나 외울 것이 많으니 시·도별, 시·군별 공업과 그 특성을 착실히 외워두자.

O/X 문제

- 1 철광석은 주로 신생대 지층에 주로 분포한다. O/X
- 2 풍력은 태양광보다 발전량이 많다. O/X
- 3 고령토는 고생대 조선 누층군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O/X
- 4 석유는 석탄보다 산업용 소비량이 많다. O/X
- 5 화석 에너지의 가정·상업, 공공용 소비량은 ‘천연가스>석유>석탄’ 순으로 많다. O/X
- 6 수력은 화력보다 강원도의 발전 방식별 발전 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X
- 7 권역별 제조업 출하액이 ‘A>B>C’타 권역, 제조업 사업체 수가 ‘B>A>C’타 권역’ 순으로 많을 때, A, B, C는 순서대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일 것이다. O/X
- 8 경북은 전남보다 농가 수가 많고 겸업농가의 비율이 높다. O/X
- 9 채소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 추세이다. O/X
- 10 철광석과 석회석은 모두 제철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O/X
- 11 시·도별 풍력 발전량은 제주가 가장 많다. O/X
-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보다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 O/X
- 13 수력과 풍력 가운데 발전량의 증가 추세가 강한 것은 수력이다. O/X
- 14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 수는 ‘경기>경남>충남’타 시·도’ 순으로 많다. O/X
- 15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제조업 출하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X
- 16 울산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O/X
- 17 전북은 경북보다 전업농가 비율이 높다. O/X

> 정답과 해설 28p

지역 지리

❁ 암기

이 파트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1순위로 꼽힌다. 암기가 없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파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기가 필수인건 사실이지만 정답의 필연성을 암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지리에서의 '일반성'을 사용한 풀이가 더 정확한 해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성을 익히는데 주력하도록 하자.

❁ 일반성

지역지리가 결합된 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수도권', '영남권' 그리고 '호남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자주 나온다. 이때 수도권과 영남권의 차이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차이는 많은 수험생들이 잘 안다. 웬만한 지표들은 대부분 수도권이 크기 때문이다. 그나마 영/호남이 앞서는 지표들도 특수해서 금방 눈에 익기 때문에 잘 풀어낸다. 그러나 영남권과 호남권의 차이는 보통 잘 외우지 않는다. 재작년 수능의 킬러 문제인 20번의 경우도 '일반성'을 놓친 채 많이 언급되는 소재 위주로만 암기하다 보니 다들 틀리게 된 것이다.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인구가 많다는 점 하나로 '일반화'만 시켜도 '순 이동 인구'와 같은 인구 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총 에너지 이용량'이나, '전 산업 생산액'과 같은 인구수에 비례하는 지표들이 나올 경우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공부하는 개념책을 가지고 '권역별', '지역별' 지표들을 모조리 확인해보고 비례 관계를 생각해보자.

❁ 지역 특성

EBS는 수도권-강원, 충청-호남-영남-제주를 묶고 있는데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각 지역의 특성으로 공부하는 것이 맞다. 에너지 지표가 큰 지역도 있고, 공업 지표가 큰 지역도 있고, 두 지표 모두 큰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어떤 지표가 높고 낮은지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고, 특히 권역별로 그리고 대도시 위주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수도권은 1차 에너지 중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특히 많은데, 이는 천연가스가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임. 또 산업 관련 총 지표가 매우 큰데, 총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와 제조되는 물품의 출하액 총액이 많다는 것을 뜻함.

❁ 북한

북한 파트는 기후(강수량, 연교차 등)와 자원·에너지 지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구 혹은 그 관련 문제들은 암기성이 짙어 문제 내에 지표를 제시하고 풀게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이 남한과 북한 간의 농업 특성 차다. 쌀 위주의 재배를 하는 남한과 기후와 지형적 요인으로 쌀 이외에도 옥수수의 재배 비중이 높은 북한과 같은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이 맞다. 이때, 당연하게도 남한의 농업 관련 지표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암기가 필요한 지표들 또한 남한의 지표만 잘 알아두면 웬만하면 다 풀린다고 보면 된다.

O/X 문제

- 1 관서, 관북, 관동은 모두 철령을 기준으로 한 지역 구분이다. O/X
- 2 옥수수는 북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량 작물이다. O/X
- 3 북한은 고령화가 크게 진행되어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O/X
- 4 동질 지역은 기능 지역보다 지역 간 계층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O/X
- 5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석탄>수력>석유' 순으로 많다. O/X
- 6 화성은 가평보다 전체 토지에서 논밭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비율이 높다. O/X
- 7 호남평야는 영산강 유역의 범람원과 간척지로 구성되어있다. O/X
- 8 전주와 안동에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통 마을이 있다. O/X
- 9 철광석은 무연탄보다 전국 대비 강원도의 생산 비중이 높다. O/X
- 10 충청권 시·도의 노령화 지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순으로 높다. O/X

> 정답과 해설 30p

정답과 해설

국토 인식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1	X	2	O	3	X	4	X	5	X
6	X	7	O	8	X				

국토 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1	X	2	X	3	O	4	X	5	O
6	X	7	X						

지형 환경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1	X	2	O	3	X	4	O	5	X
6	O	7	X	8	X	9	O	10	X
11	X	12	O	13	X				

하천 지형과 산지 지형

1	X	2	X	3	X	4	O	5	O
6	O	7	X	8	X	9	O	10	O
11	X	12	X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1	X	2	X	3	X	4	X	5	O
6	O	7	X	8	O	9	X	10	X

기후 환경

기후 특성과 변화, 자연재해

1	O	2	X	3	X	4	X	5	O
6	X	7	X	8	O	9	O	10	X

거주·인구·소비 공간

도시와 인구 / 교통, 서비스업, 소비

1	X	2	X	3	O	4	O	5	O
6	X	7	O	8	X	9	O	10	O
11	X	12	X	13	X	14	O	15	O
16	X	17	O	18	X	19	X	20	O

생산 공간

자원·에너지 / 농업, 공업

1	X	2	X	3	X	4	O	5	O
6	X	7	X	8	X	9	X	10	O
11	X	12	X	13	X	14	O	15	O
16	X	17	O						

지역 이해

지역 지리

1	O	2	X	3	X	4	X	5	O
6	O	7	X	8	X	9	O	10	X

국토 인식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1	X	2	O	3	X	4	X	5	X
6	X	7	O	8	X				

01

우리나라에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위도(가로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경도(세로선)는 시간에 영향을 준다.

02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속 도서가 섬을 이르는 말이다. 섬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 하더라도 섬은 영토로 인정받으며,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진다.

심화: 이어도는 어떨까? 유엔 해양법 제121조 1항에서는 섬(island)을,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 지리에서는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이 중요하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고, 이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지만, 이어도 자체는 항상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수중 암초(reef)이다. 암초를 영토로 선언하고 영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면 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어도는 그렇지 못하므로 영토가 아니며 영해도 가질 수 없다. 또 유엔 해양법 제121조 3항에서는 ‘암초들(rocks)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어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또한 가질 수 없다.

03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은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에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이란, 대한민국의 영토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을 뜻하는 것으로,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이 아니다.

04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되려면, 최종 빙기 때 육지였어야 한다. 독도 주변 해역은 수심이 깊어 독도는 최종 빙기 때도 섬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도가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되었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05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므로, 북한 또한 규정상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영토의 극서는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이다. 백령도는 인천광역시의 서단으로 남한의 극서이긴 하지만, 마안도에 비해 동쪽에 위치해 있다.

06

독도는 경관이 우수하고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국가지질공원과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여담으로, 환경부는 2002년에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2004년에 무산되었다.

07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마라도에서 약 149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중국의 서산다오에서 약 287km 떨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다.

08

독도는 지형이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하다. 따라서 항구 건설이 용이하지 않다.

국토 인식

국토 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1	X	2	X	3	O	4	X	5	O
6	X	7	X						

01

풍수지리 사상은 땅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했다. 국토의 적극적인 개발을 강조한 국토 인식은 산업화 시대의 국토 인식이다.

02

일제 강점기 때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일본에 의해 소극적, 부정적인 국토 인식이 강요되었다. 이는 구한말 '토끼 형상을 한 한반도 지도'로 대표된다.

참고: 위에 대응한 것이 자주성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의 '호랑이 형상을 한 한반도 지도'(근역강산명호기상도)이다.

03

지리 정보에는 장소나 현상의 위치 및 형태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 장소나 현상의 인문적·자연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 다른 장소나 지역과의 상호 작용 및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정보가 있다.

04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에 국가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관찬 지리지이다. 따라서 실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학의 영향을 받은 사찬 지리지로는 이종환의 택리지, 신경준의 도로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등이 있다.

05

설문조사는 지역 조사의 절차 중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야외 조사의 방법 중 하나이다.

06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중국을 지도의 중심에 배치하고, 지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표현하는 등 중화사상을 반영한 지도이다. 다만, 조선을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하는 등 주체적 국토 인식 또한 드러내었다.

07

택리지에서는 가거지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풍수지리적 명당인 곳인 '지리', 비옥한 땅이거나 교통이 편리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곳인 '생리', 풍속과 주민 간의 분위기가 좋은 곳인 '인심', 경치가 좋거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인 '산수'이다. 문제의 지역의 풍속과 관련된 조건은 '인심', 경치, 풍경과 관련된 조건은 '산수'이다.

지형 환경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1	X	2	O	3	X	4	O	5	X
6	O	7	X	8	X	9	O	10	X
11	X	12	O	13	X				

01 신라의 대표적 건축물인 불국사 삼층석탑과 첨성대는 주로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02 옥천 습곡대는 주로 고생대 퇴적층인 조선, 평안 누층군과 중생대 화강암(관입암)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생대 퇴적층인 조선 누층군과 평안 누층군에는 각각 석회암과 무연탄이 다수 분포, 매장되어 있으며, 중생대 화강암(관입암)은 대보 조산 운동과 불국사 운동 때 관입한 것이다.

03 제주도는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에 걸쳐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형성된 지형은 함경산맥, 태백산맥 등의 산지 지형이다.

04 최종 빙기 때는 현재(후빙기)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 낙동강의 하구가 일본에 가까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낙동강의 발원지와 하구 간의 거리가 현재보다 멀었다.

05 최종 빙기 때는 현재(후빙기)보다 약 100m 정도 해수면이 낮았는데, 동해도 이에 영향을 받아 현재보다 해수면이 낮아 현재는 연안인 곳이 육지로 드러나 있었다.

06 1차 산맥은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융기한 산지로, 지각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1차 산맥과 달리 2차 산맥은 중생대의 지각 변동인 송림 변동과 대보 조산 운동으로 형성된 지질 구조선을 따라 오랫동안 침식이 진행되며 형성된 산지로, 지각 변동은 지질 구조선을 만들었을 뿐 산지를 만든 것은 아니므로 지각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07 울릉도는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재(후빙기)에도 해발고도 984m인 산지를 가진 섬이므로 해수면이 현재에 비해 낮았던 최종 빙기 때도 육지로서 드러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최종 빙기 때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낮았으므로 울릉도의 해발고도가 현재보다 높았다.

08 지리산은 대표적인 흙산으로 기반암은 주로 변성암(편마암)이고, 금강산은 대표적인 돌산으로 기반암은 주로 화강암이다.

09 공룡 발자국에 관련된 지층은 경상 누층군으로, 중생대에 육지의 호소(호수와 늪)에 퇴적된 육성층이다.

10 빙기는 현재(후빙기)보다 한랭 건조하여 동결과 융해가 자주 일어나 암석의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였고, 그에 따른 풍화산물의 공급이 많았다. 후빙기에 접어들며 기온이 온난 습윤해져 화학적 풍화 작용이 우세해지게 되었다.

11 태백시 매봉산 일대는 고위 평탄면으로, 지형과 기후를 이용한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온 역전 현상에 따른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침식 분지이다.

12 신생대 제3기 이후 동해의 지각이 확장하면서 발생한 횡압력으로 한반도 전체에 지반 융기가 일어났다. 이때 융기의 축이 동쪽으로 치우쳐져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반이 융기하여 동고서저의 비대칭적 지형이 형성되었다.

참고: 경동성 요곡 운동과 경동 지형에서의 경동은 한자로 傾動으로 '기울 경' 자에 '움직일 동' 자를 쓴다. 말 그대로 '(축이) 기울어져 움직였다'는 뜻이다. '동녘 동(東) 자가 아니다.

13 동해안을 따라 배열된 1차 산맥(태백산맥, 함경산맥)은 동쪽은 급경사면이고, 서쪽은 완경사면이다.

지형 환경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

1	X	2	X	3	X	4	O	5	O
6	O	7	X	8	X	9	O	10	O
11	X	12	X						

01

감조 하천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하천 하류의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으로,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서·남해에 있는 모든 하천이 감조 하천이라 볼 수 있으나, 하굿둑은 낙동강(부산), 금강(군산-서천), 영산강(목포-영암) 세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02

해안 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의 운반으로 퇴적되어 형성되는 지형이다. 지반의 융기 및 해수면 변동으로 형성되는 지형으로는 해안 단구가 있다.

03

방풍림은 주로 해안 사구의 모래가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되므로, 사빈이 아닌 해안 사구에 조성된다.

04

해안 사구에 형성되는 지하수는 담수이다. 밀도 차이로 잘 섞이지 않지만, 섞였다라도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다.

담수: 강이나 호수 따위와 같이 염분이 없는 물.

05

우리나라의 석호는 동해안에 많이 발달했으며, 강릉 경포호, 속초 영랑호는 대표적인 석호이다.

06

사빈의 모래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퇴적된 것이 해안 사구이므로,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가 해안 사구의 형성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해안 사구가 서해안에 잘 발달했는데, 이는 바람의 세기가 강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이다.

07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 가운데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다.

08

삼각주는 지하수면이 얇아(높아)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하다.

09

침식 분지는 기온 역전 현상과 그에 따른 안개가 잘 발생하는 편이고, 기온 역전 현상은 기온의 하강을 수반하므로 농작물의 냉해를 유발할 수 있다.

10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 굴곡도는 1910년에서 2010년 사이, 9.7에서 5.24로 8.54에서 7.89로 각각 감소하였다. 남해안과 비교해 서해안의 굴곡도 변화가 큰데 이것은 남해안보다 서해안에서 간척, 방조제 축조, 도로 건설 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 결과이다.

11

석호는 후빙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강의 하구가 만이 되고, 만이 사주의 성장으로 막히면서 형성되었다. 빙기 때는 강이 흐르는 골짜기였을 것이다.

12

역간척 사업에는 바닷물을 막고 있던 방조제의 철거가 수반되는데, 방조제가 사라지면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하천 하구의 염도가 높아져 농경지에 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충남 태안·서산의 천수만 부남호 간척지는 2016년 보의 대규모 절개 이후 염분 농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염해 피해로 농작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지형 환경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1	X	2	X	3	X	4	X	5	O
6	O	7	X	8	O	9	X	10	X

01

백두산 정상부는 조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경사가 급한 형태를 띠고 있다.

02

종상 화산인 산방산은 조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03

최종 빙기 때의 해안선은 일본 오키나와 근방이었으므로 제주도 우도는 모두 육지였다.

04

나리분지와 백록담이 속한 울릉도와 제주도는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에 걸쳐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05

현무암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굳어 형성되었다.

06

돌리네는 석회암 지대에서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배수구(싱크홀) 주변이 물에 의해 용식되어 형성된 깔때기 모양의 지형을 뜻한다.

07

산방산은 종상 화산으로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이 굳어 형성되었으며, 산방산을 둘러싸고 있는 제주도 본토는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이 굳어 형성되었다.

08

용암 동굴은 점성이 작은 용암이 흘러내릴 때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표층부는 빨리 식어 굳었는데, 내부의 용암은 그대로 흘러나가 내부가 비면서 동굴이 형성되었다.

09

강원도 정선은 옥천 습곡대 내에 있는 대표적인 석회암 지대로 돌리네 등의 지형이 다수 분포한다. 발구덕은 '둥글게 움푹 꺼져 들어간 곳'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발구덕 마을은 12개소 이상의 돌리네가 분포하고 있는 특징에서 마을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마을 아래에는 석회암 층유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10

백록담은 분화구에 물이 고인 화구호로 화학적 풍화 작용과는 관련이 없다.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형성되는 와지로 카르스트 지형의 돌리네가 있다.

기후 환경

기후 특성과 변화, 자연재해

1	O	2	X	3	X	4	X	5	O
6	X	7	X	8	O	9	O	10	X

01

강릉과 포항은 모두 동해안에 있으며 해안 도시로 해발고도가 낮지만, 강릉이 포항보다 위도가 높아 겨울 평균 기온이 낮다.

02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계절은 겨울로, 습도가 낮은 시기이다.

03

기온 역전 현상은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없는, 맑은 날의, 밤에서 새벽'에 잘 나타난다.

04

대관령이 강릉보다 서리의 마지막 날이 늦는 것은 대관령의 해발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기 때문이다. 보통 위도가 낮을수록 서리의 마지막 날이 빨라지는데, 대관령은 강릉보다 위도가 낮음에도 해발고도로 인해 기온이 매우 낮아 서리의 마지막 날이 늦다.

05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청진과 달리, 겨울철 북동기류의 바람받이로 다설지인 강릉은 겨울 강수량이 높으므로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고 겨울 강수 집중률은 높다. 따라서 강릉은 청진보다 여름 강수량 대비 겨울 강수량의 비율이 높다.

06

초여름에 오호츠크해 기단이 확장하여 북동풍이 불었을 때, 핀 현상의 영향을 받아 고온 건조한 북동풍(높새바람)이 지나가는 영서지방에 위치한 원주의 기온이 가장 높을 것이며, 해발고도와 핀 현상의 영향을 받은 대관령의 기온이 가장 낮을 것이다. 강릉의 기온은 원주와 대관령의 기온 사이에 위치할 것이므로, 일 최고기온은 '원주>강릉>대관령' 순으로 높을 것이다.

06

심화: 핀 현상은 바람이 바람받이 사면을 올라갈 때의 '습윤 단열 변화'와 바람그늘 사면을 내려올 때의 '건조 단열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습윤 단열은 일정 고도마다 0.5°C가 하강하는데 비해, 건조 단열은 일정 고도마다 1°C가 상승한다. '높새바람'에서, 저온 습윤한 북동풍이 강릉을 넘어 태백산맥을 오르며 일정 고도마다 0.5°C가 하강하며 대관령(능선)에 도달한다. 대관령은 해발고도 때문에 원래 기온이 낮은데다 태백산맥을 오르며 차가워진 바람이 지나므로 강릉보다 기온이 낮다. 이후 북동풍은 태백산맥을 내려가며 일정 고도마다 1°C가 상승하며 고온 건조해진다. 이때 태백산맥을 오르며 하강한 온도보다 산맥을 내려가며 상승하는 온도가 크기에, 높새바람(북동풍)이 원주를 지날 때는 강릉을 지날 때보다 고온 건조해져 있으며, 이 때문에 '기온의 동서 차'가 유발된다.

07

울릉도는 우리나라 최다설지이며 겨울 강수량이 가장 높은 시·군인데, 이는 울릉도가 동해 한복판에 있어 습윤한 북동기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릉도가 태백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은 것은 해발고도의 영향이 아닌 수륙분포의 영향이다.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지만 겨울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참고: 겨울 강수량

울릉도(311.4 mm), 대관령(153.0 mm), 태백(87.6 mm)

(기상청, 1981-2010 평년값)

08

기온의 일교차는 맑은 날이 흐린 날보다 크게 나타난다. 일교차는 '맑고, 건조할수록' 크게 나타나므로, 일교차가 큰 날이 작은 날보다 덜 흐린 구름이 적은 날이었을 것이다.

09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의 생산 활동과 자동차, 냉·난방기 가동 등으로 인공 열의 발생이 커지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햇빛에 의해 쉽게 가열되고, 고층 건물은 열 배출을 막고 열을 가두므로 도시화는 기온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된다. 이 영향으로 기온 상승과 관련이 큰 열대일 일수, 열대야 일수 분포도에서 특별·광역시나 주변 시·군보다 높은 분포를 보인다. 도시화의 기온 상승이 한파 일수에도 영향을 미치겠으나, 한파 일수나 일 최고기온 0°C 미만 일수 분포도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라고 해서 주변 지역보다 크게 낮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위도와 해발고도에 비례하는 모습을 보인다.

10

보령 머드 축제는 7월 여름, 진해 군항제는 4월 봄에 열린다. 산불은 건조할수록 잘 일어나는데, 4월 봄이 7월 여름보다 건조하므로 진해 군항제가 개최되는 시기가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리는 시기보다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거주·인구·소비 공간

도시와 인구 / 교통, 서비스업, 소비

1	X	2	X	3	O	4	O	5	O
6	X	7	O	8	X	9	O	10	O
11	X	12	X	13	X	14	O	15	O
16	X	17	O	18	X	19	X	20	O

01

농촌과 어촌, 산지촌은 촌락을 기능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촌락을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산촌과 집촌으로 나눌 수 있다.

02

정부가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꾀한 도시는 혁신도시이다. 기업 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계획적으로 직접 개발하는 도시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거·교육·의료 등 기반 시설을 갖춘 자급형 도시를 말한다.

03

지역 분화는 도시가 성장하며 인구가 많아지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집심·이심 현상을 겪으며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상업·업무 지역, 공업 지역, 주거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뜻한다. 도시의 성장이 진행되면서 도심과 주변 지역의 지대·지가의 차이가 커질수록 집심·이심 현상도 강하게 나타나 지역 분화가 뚜렷해진다.

04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서울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부산과 수도권 등 대도시권 일대에 설정되었다.

05

도심에는 상업·업무 기능이 집중되는 집심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중구 소공동과 그 주변에는 정부서울청사, 서울특별시청, 주한미국대사관, 신세계백화점 본점, 롯데호텔 등 상업·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집심 현상의 반대는 주거·공업 기능이 도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심 현상이다.

06

경기도 북서쪽 끝에 있는 파주의 운정신도시는 서울 옆에 붙어있는 부천의 중동신도시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멀다.

> 27p의 1, 2기 수도권 신도시 위치도를 참고하세요.

07

고양에는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1기 일산신도시가 있다.

08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해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인구 감소를 겪을 것이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국토 공간의 재편성은 과거 인구가 급증하던 시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09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은 접근성이 높은 촌락보다 지가가 낮아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은 편이다.

10

종로구 종로3가역과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은 모두 업무 기능 또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 위치하여 출근 시간대의 하차 인원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은 제조업 지구이므로 출근 시간대가 끝나면 낮 시간대에는 승객이 하차할 유인이 없어 하차한 승객이 적고, 출근 시간대에 하차한 승객들은 업무 중이니 한낮에 승차할 인원이 크지 않다. 반면 종로구 종로3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시가지 지역에 위치하여 출근 시간대 하차한 승객이 승차하지 않더라도, 낮 동안에 종로구를 찾는 많은 승객이 승하차한다. 따라서 종로구 종로3가역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보다 한낮의 승차 인원이 많다.

11

법정동 수가 행정동 수보다 많은 구는 도심의 중구와 종로구이며, 행정동 수가 법정동 수보다 많은 구는 외곽의 노원구 등이 있다. 따라서 법정동 수가 행정동 수보다 많은 구가 반대인 구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을 것이다.

참고: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상주인구가 적은 도심의 구는 행정 편의를 위해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의 행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행정동을 구성하므로 법정동 수보다 행정동 수가 적다. 반대로 하나의 법정동에 상주인구가 많은 외곽의 구는 행정 효율을 위해 하나의 법정동을 인구수에 맞춰 다수의 행정동으로 나누므로 법정동 수보다 행정동 수가 많다.

12

파주에는 수도권 2기 운정신도시가 있다. 운정신도시 바로 아래에 수도권 1기 고양 일산신도시가 있으므로 구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3

이 산업은 수도권과 영남권 시·도에 취업자가 많으며, 서울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편인 산업이면서, 경기도가 서울보다 취업자 수가 많다.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는 정보통신 산업이 크게 발전한 서울이 경기보다 많으므로 정보통신업이 아니며, 서울은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0에 가까우므로 농림어업 또한 아니다. 농림어업은 경북, 전남, 전북 등의 시·도에서 큰 값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산업은 인구가 많고 제조업이 발달한 수도권과 영남권에 위치한 시·도에서 높은 취업자 수를 보이는 제조업이다. 서울의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제조업이 발달한 타 시·도보다 2배가량 낮지만, 인구 규모가 몇 배나 크므로 2차 산업 취업자 수가 많다.

참고: 이 문항을 다시 살펴보면 주로 학습하는 제조업 '종사자 수'가 아닌 제조업 '취업자 수'를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자 수와 취업자 수는 언뜻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취업자가 종사자의 상위 분류로 더 큰 범위이다. 또한 한국 지리에서 배우는 종사자 수는 종사자 규모 10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이므로 총 취업자 수와 종사자 수 간의 괴리가 더 커진다. 취업자 수는 주로 '비율'로 출제되며, 제조업 하위 주요 산업들은 종사자 수를 묻지, 취업자 수를 묻지 않으므로, 산업별 취업자 수를 외울 필요는 없다. 만약 취업자 수를 묻더라도 지역적 또는 산업적 특성 등이 크게 드러나는 산업일 것이다.

14

사업체 수는 '편의점>무점포>대형마트>백화점' 순, 종사자 수는 '무점포>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 순, 매출액은 '무점포>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 순으로 많다. 2016년 통계까지는 대형마트가 매출액이 가장 많았지만,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쿠팡, 11번가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2017년 통계부터는 무점포 소매업의 매출액이 가장 많다.

15

성비는 조선 공업 도시인 거제와 최전방으로 제3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인제가 가장 높을 것이므로, A와 B는 거제 또는 인제임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남은 C가 경기 용인이고, 공업 도시인 경남 거제가 강원 인제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을 것이므로, A가 거제, B가 인제임을 판단할 수 있다.

16

권역별 인구는 '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 순으로 많으며, 전국 대비 비중 순서도 같다.

17

취업자 수 '비율'이다. 시·도의 산업적 특성을 묻는 것이므로, '울산>충남>전남>서울' 순일 것이다. 울산은 공업 도시로 2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이며, 충남이 전남보다 제조업이 더 발달해 있으며, 공업 도시가 많고,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서울은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으며, 주요 제조업체들은 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경기로 빠져나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만 남아있고,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18

외국인 취업자 수는 '광업·제조업>도소매·음식·숙박업>농림어업' 순으로 많다. 우선 광업·제조업은 외국인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이다. 다음으로 산업의 규모 등을 생각했을 때, 농촌에서 농사를 돕는 농림어업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취업자 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농림어업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취업자 수가 3배 이상 많다.

19

서울, 경기, 울산, 전남의 노령화 지수는 '전남>서울>경기>울산' 순으로 높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도인 전남이 지수가 가장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인 울산이 지수가 가장 낮다. 서울과 경기 간은 서울의 집값 문제와 경기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서 경기의 신도시, 공업 도시로 젊은층이 빠져나가는 현상과 맞물려 서울이 경기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시·도	비율			노령화 지수
	유소년	생산연령	노년	
서울	12.1	75.4	12.6	104.3
울산	15.2	75.9	8.9	58.2
경기	15.5	73.8	10.7	69.0
전남	13.4	65.5	21.1	1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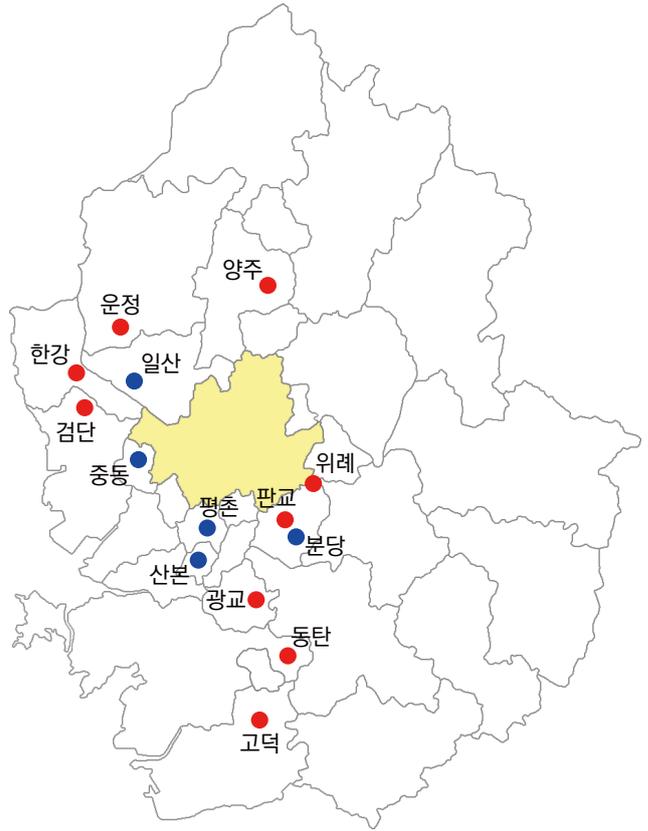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서울	11.4	74.8	13.7	120.1
울산	14.7	75.2	10.0	68.4
경기	14.7	73.7	11.5	78.2
전남	12.8	65.1	22.0	171.5

(통계청, 2017)

20

강원, 충남, 제주의 인구 밀도는 '제주>충남>강원' 순으로 높다. 제주는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더 작아서 인구 밀도가 높으며, 강원은 인구에 비해 면적이 매우 커서 인구 밀도가 매우 낮다. 제주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며, 강원은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다.



▲ 1, 2기 수도권 신도시

*푸른색 1기 신도시, 붉은색 2기 신도시

생산 공간
자원·에너지 / 농업, 공업

1	X	2	X	3	X	4	O	5	O
6	X	7	X	8	X	9	X	10	O
11	X	12	X	13	X	14	O	15	O
16	X	17	O						

01

한반도의 신생대 지층에 주로 분포하는 자원은 갈탄이다.

02

태양광이 풍력보다 발전량이 많다.

참고: 발전량

태양광(705.6만 MWh), 풍력(216.9만 MWh)

(한국에너지공단, 2017)

03

조선 누층군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자원은 석회석이다.

04

석유는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이다.

참고: 산업용 소비량

석유(6,983.4만 toe), 석탄(3,284.6만 toe)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05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가정·상업, 공공용 소비량은 '천연가스>석유>석탄' 순으로 많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로 사용되어 가정·상업용 소비량이 많은편이다.

참고: 가정·상업, 공공용 소비량

천연가스(1,399.3만 toe), 석유(715.8만 toe),

석탄(51.3만 toe)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06

강원도의 전체 발전 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화력이 수력보다 높다.

06

참고: 강원도의 화력, 수력 발전 설비 용량

화력(511.3만 kW, 77%), 수력(151.7만 kW, 23%)

*괄호의 %는 화력·수력·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전력거래소, 2017)

07

권역별 제조업 출하액은 '영남권>수도권>충청권>타 권역', 제조업 사업체 수는 '수도권>영남권>충청권>타 권역' 순으로 많다. 따라서 A, B, C는 순서대로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이 다.

08

경북은 전국에서 농가 수와 농가인구가 가장 많으며, 전업농가의 비율도 전남보다 높다.

시·도	농가 수	농가인구	겸업농가 비율
제주	3.1만 가구	8.3만 명	57.1%
경기	11.3만 가구	29.6만 명	53.7%
강원	6.8만 가구	15.4만 명	53.5%
~			
전남	14.5만 가구	30.6만 명	40.8%
경남	12.3만 가구	26.5만 명	37.9%
경북	17.6만 가구	37.7만 명	37.0%
전북	9.5만 가구	20.9만 명	35.8%

(통계청, 2018)

09

채소의 1인당 소비량은 증가 추세이다. 1인당 소비량이 감소 추세인 작물은 벼(쌀)가 대표적이다.

10

철광석은 제철의 주원료이며, 석회석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된다.

11

풍력 발전량이 가장 많은 시·도는 강원도이다.

참고: 풍력 발전량 상위 3개 시·도

강원(64.3만 MWh), 제주(53.8만 MWh), 경북(51.5만 MWh)

(한국에너지공단, 2017)

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보다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

참고: 화학, 자동차 제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화학(2.9천 개, 13.4만 명, 148.4조 원),
자동차(4.6천 개, 35.2만 명, 192.8조 원)

(통계청, 2017)

13

풍력 발전량은 2017년까지 큰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수력 발전량은 매년 다른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등 변동이 심했으며,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14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 수는 '경기>경남>충남>타 시·도' 순으로 많다.

참고: 제조업 종사자 수 상위 4개 시·도
경기(91.8만 명), 경남(32.6만 명), 충남(25.6만 명),
경북(24.8만 명)

(통계청, 2018)

15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제조업 출하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영세한 제조업체가 많은 편이다.

시·도	제조업 출하액 (조 원)	출하액에서 대기업 비중
영남권	532.7	57.2%
수도권	519.0	44.6%
경기	418.5	47.0%
울산	189.6	76.5%
경북	141.6	57.3%
경남	127.7	47.9%
인천	71.1	43.1%
부산	42.7	27.1%
대구	31.1	18.2%
서울	29.5	13.1%

(통계청, 2018)

16

경기는 시·도 중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다.

17

전북은 전국에서 전업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다.

시·도	농가 수	농가인구	겸업농가 비율
제주	3.1만 가구	8.3만 명	57.1%
경기	11.3만 가구	29.6만 명	53.7%
강원	6.8만 가구	15.4만 명	53.5%
~			
전남	14.5만 가구	30.6만 명	40.8%
경남	12.3만 가구	26.5만 명	37.9%
경북	17.6만 가구	37.7만 명	37.0%
전북	9.5만 가구	20.9만 명	35.8%

(통계청, 2018)

참고: 2017년까지는 경북이 전업농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 이해
지역 지리

1	O	2	X	3	X	4	X	5	O
6	O	7	X	8	X	9	O	10	X

01

관서, 관북, 관동은 차례대로 관(關)의 서쪽, 북쪽, 동쪽을 뜻하는데, 관이란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에 있는 고개인 철령(鐵嶺)에 있던 관을 말한다. 관서는 철령관의 서쪽인 평안도, 관북은 함경도, 관동은 강원도를 뜻한다.

02

식량 작물 생산량에서, 북한은 한랭한 기후 등의 이유로 논 농사가 불리하여 부족한 쌀 생산량을 대체하기 위해 옥수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옥수수 재배가 활발하지만, 여전히 가장 주력이 되는 식량 작물은 쌀이며 전체 생산량의 46.6%를 차지한다. 옥수수는 쌀의 뒤를 이어 35.5%를 차지하고 있다.

03

현재 북한도 경제난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 출산 장려 정책이 추진되고 고령화 또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는 아니다. 북한의 노령화 지수는 49.9로 유소년총 인구가 노년총 인구보다 두 배 정도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8)

04

지역 간 계층 구조는 지역 간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는 결과로, 서울과 경기도 시·군 간의 사례와 같이 중심지와 그 영향이 미치는 배후지의 공간 범위를 보여주는 기능 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05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석탄 53.7%>수력 26.5%>석유 8.6%' 순으로 많다. 북한에 다수 매장되어 있는 석탄의 사용량이 가장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 자원인 석유는 UN 안보리의 경제 제재 등의 이유로 북한에서는 공급량이 작은 편이다. 부족한 에너지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험준한 산지가 많은 지형을 이용한 수력 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수력 발전은 북한의 주력 전력 생산 방식이다. '수력 발전 50.6%>화력 발전 49.4%'

06

가평은 산지가 많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이 더디며 인구 수 자체가 작아 토지 이용이 활발하지 않아, 임야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농지로 사용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화성은 경기 남부의 평야 지대에 있어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많은 편이고 임야가 작다.

07

호남평야는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발달한, 전북 군산, 김제, 전주, 부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평야이다. 영산강 유역에 발달한 평야는 나주평야이다.

08

전주와 안동 모두 전통 마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전주만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안동 하회마을은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09

철광석은 강원에서만 생산되는데, 무연탄은 강원과 전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철광석이 무연탄보다 전국 대비 강원도의 생산 비중이 높다.

10

행정도시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함께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은 유소년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노년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 대전은 대표적인 대도시로 충남, 충북보다 유소년 비율이 높고, 노년총 비율이 낮으며, 노령화 지수 100.0을 넘지 않는다. 충남, 충북은 모두 노령화 지수 100.0이 이상인데, 충남에 한국 지리에서 배우는 주요 산업 도시들이 있고,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는 등의 이유로 충남이 충북보다 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충남이 충북보다 유의미하게 노년총 비율이 높아, 노령화 지수도 높다.

시·도	비율			노령화 지수
	유소년	생산연령	노년	
대전	14.7	74.6	10.8	73.5
세종	19.8	69.6	10.5	53.0
충북	14.0	71.2	14.8	106.0
충남	14.5	69.3	16.3	112.4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13.8	74.3	11.9	86.3
세종	20.5	70.2	9.3	45.5
충북	13.3	71.0	15.7	118.6
충남	13.9	69.2	16.9	121.8

(통계청, 2017)

